

성인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 기회제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 복 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요 약]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제공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를 실천적 차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거주하는 생활시설 성인지적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중 자기결정 개념인지, 실천가와와 관계인식과 환경적 특성 중 시설위치, 시설규모가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기회제공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주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과 결정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거주환경의 세부적인 개편 등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성인 지적장애인, 자기결정, 개별적 특성, 환경적 특성, 기회제공

1. 서론

자기결정은 외부의 압력없이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 요구이자 욕구이다(Jenkinson, 1993). 선택과 결정에는 개인의 존엄성, 독립 등이 반영되며(Guess et al., 2008)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자기결정은 핵심적인 가치이자 권리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자기결정의 의

* 본 연구는 저자의 2012년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요약한 것임.

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이란 실천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지적장애인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권익과 참여라는 쟁점에 기초하여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중시되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Wehmeyer et al., 1996; Schalock et al., 2005; Wong and Wong, 2008).

실천적 측면에서 자기결정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여가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등의 선택을 의미한다(Mary et al., 2005; 신중호 외, 2009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자기결정 수행을 지향하고 결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의 생활공간을 배경으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은 일상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Schalock and Keith, 1993)도 비슷한 맥락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0년 동안 미국, 호주, 영국 등 서구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사회통합은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 왔다. 특히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개인(Wehmeyer et al., 1996; Wehmeyer and Garner, 2003; Soresi et al., 2004)과 환경(Robertson et al., 2001; Stancliffe, 2001; Nota et al., 2007; Karr, 2009)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기회제공과 자기결정의 연관성을 입증함으로써(Hahn, 1994; Wehmeyer and Metzler, 1995; Wehmeyer and Garner, 2003)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논의를 진척시켜왔다. 개인적 요인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자기결정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Wehmeyer 외(1996)의 기능이론에, 환경적 요인은 지적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따라 자기결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Abery와 Stancliffe(1996)의 생태학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기능이론과 생태학이론은 각각의 요인을 인정하지만 특정 요인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Mithaug(1996)는 평등기회이론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기회에 따라 자기결정 수준이 상이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의해 결정기회가 달라지고 자기결정 수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연구들은(Heller et al., 1999; Wehmeyer and Garner, 2003; Nota et al., 2007) 기회제공의 매개효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자기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미흡한 편이다. 거주유형에 따른 결정 수준의 비교만(이경준, 2005; 박공식, 2004; 이응훈, 2006; 김용득·박숙경, 2008; 이순자, 2009) 소수 보고된 상황이므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교연(2007)도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달리 실천현장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기능이론과 생태학이론을 토대로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Mithaug(1996)의 평등기회이론에 기초하여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기회제공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연결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환경을 생활시설)로 한정하였다. 생활시설은 공동생활과 일정한 규칙이 요구되는 특성상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 등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며(Smith et al., 2005), 자기결정권이 가장 침

해당하는 공간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임성택, 2012).

본 연구는 실천현장의 자기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 당사자를 연구에 참여시키고,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기회제공이 매개한다는 모형을 가정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기회제공의 효과검증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과 지원의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기결정 논의를 실천적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회제공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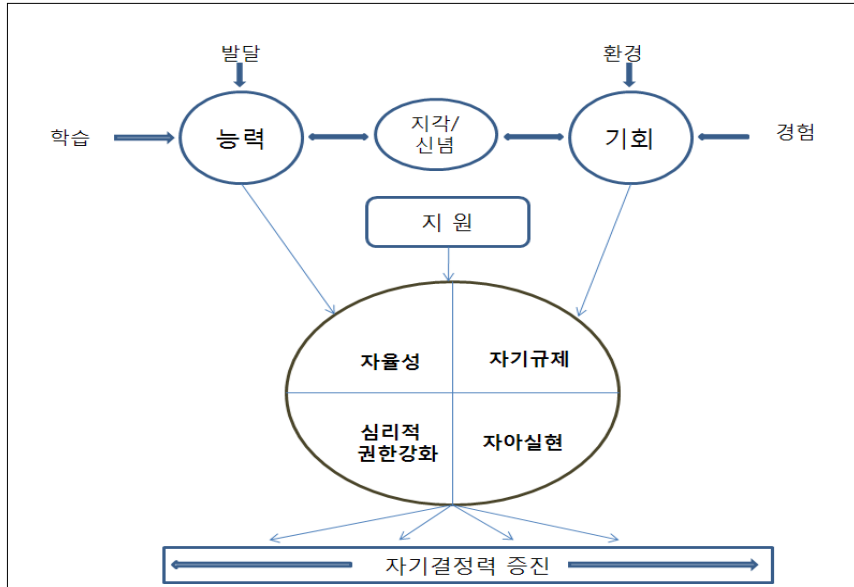
2. 이론적 고찰

1) 자기결정 기능이론

Wehmeyer 외(1996)에 의해 개발된 기능이론은 자기결정의 개념적 체계를 구성하는 대표적 이론이다. 기능이론은 행동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격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Wehmeyer는 자기결정을 불필요한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 없이 삶의 질과 관련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일상에서 원인주체(casual agent)로 행동하는 능력과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원인주체는 기능이론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지적장애인의 선호, 관심, 능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상황에서 원인주체로 행동할 때 개인을 둘러싼 생활공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환경적 요인도 중시된다(Wehmeyer et al., 1996; Wehmeyer and Bolding, 1999). 그러나 기능이론은 지적장애인의 인식, 태도, 능력 등과 같은 개별적 특성에 따라 자기결정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요인을 훨씬 강조한다.

자기결정은 자율적이며(autonomy), 자기규제가 가능하고(self-regulation), 심리적으로 권한강화되며(psychological empowerment),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라는 4가지 자기결정적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기능이론의 핵심은 자기결정적 행동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기능이론을 토대로 Wehmeyer 외(1996)는 <그림 1>과 같이 자기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제반 요소를 포함한 기능모델을 개발하였다.

1) 2012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기존의 생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되었다. 본 연구는 개편 이전의 대표적인 거주유형에 해당되는 생활시설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림 1〉 기능모델

기능이론은 지적장애인의 병리나 결함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기능이론은 서비스제공자가 지적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으며, 자기결정 이론의 생성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논의를 체계화시킨 기능이론에 힘입어 개인적 요인은 오랫동안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능력으로 분류된다.

성별의 경우 Soresi 외(2004)는 여성의 자기결정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남성의 결정수준이 높거나(Duvdevany et al., 2002; Karr, 2009) 양자의 무관성을 제시한 연구결과도 있다(Wehmeyer and Schwartz, 1998; Wehmeyer and Garner, 2003).

연령의 경우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축적되어 자기결정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되었지만(Wehmeyer and Schwartz, 1998; Robertson et al., 2001; Duvdevany et al., 2002), 자기결정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Soresi et al., 2004; Nota et al., 2007). 상반된 연구결과의 일부는 지적장애인을 대신하여 보호자(Robertson et al., 2001)나 실무자(Nota et al., 2007)가 응답한 것이다. 그러나 대리응답은 응답자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어 연구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확신하기 어려움 등의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의 경우, Standcliffe(2001)는 지적장애인의 이해능력과 자기결정 수준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자기결정 기술의 학습, 훈련 등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Wehmeyer와 Garner(2003)도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Wehmeyer와 Bolding(2001)도 자기결정을 이해시키는 학습 강도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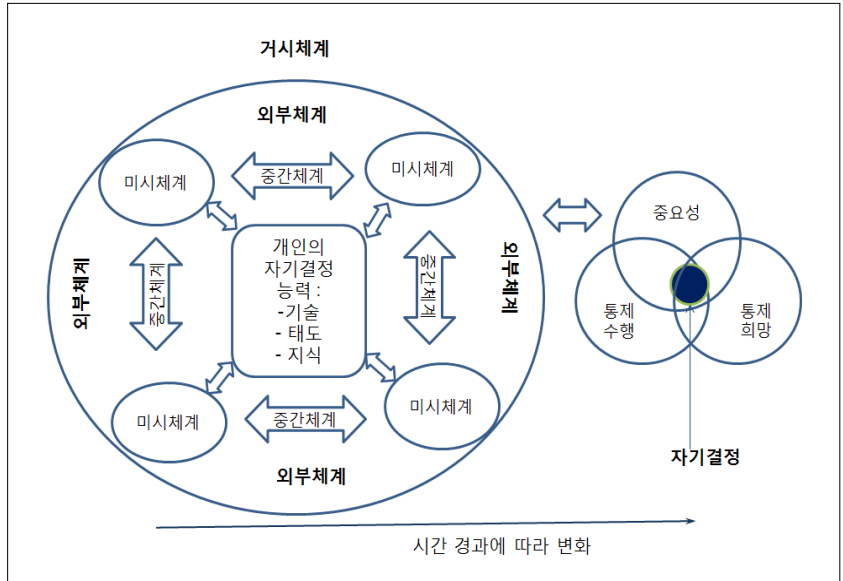
자기결정 수준이 달라짐을 보고하면서 실무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Wehmeyer와 Garner(2003)가 지적장애인 300명을 거주유형별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능력은 자기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적장애인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적응행동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Stancliffe 외(2000)는 적응행동이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속 연구(Soresi et al., 2004; Nota et al., 2007)에서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적응행동과 자기결정은 무관하다는 연구결과도(Tossebro, 1995; Stancliffe, 1997; Emerson et al., 2000)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능이론에서 지적장애인의 이해와 인식 등은 자기결정 수준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기결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시설이라는 공간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지적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실천가와의 관계와 자기결정 수준의 인과성은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방식을 모색할 때 유용할 것이다. Ippoliti 외(1994)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집단면담 결과, 거주인이 인식하는 실천가와의 관계가 자기결정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함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천가와의 관계 인식을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검증할 것이다.

2) 자기결정 생태학이론

자기결정 체계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으로 기능이론과 함께 생태학이론을 들 수 있다. Abery와 Stancliffe(1996)는 자기결정을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에 대한 통제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태계구조이론에 기초하여 생태학적 틀을 개발하였다. 생태학이론에서 자기결정은 개인이 통제력을 행사하는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정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 등이 포함되므로 생태학적 삼자모델(Tripartite ecological mode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Abery와 Stancliffe(2003)는 자기결정에 필요한 지적장애인의 능력을 기술, 지식, 태도로 범주화하였으며, 개인의 능력은 환경체계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생태학이론에서는 특히 미시체계의 역할이 강조된다(Stancliffe, 2001). 미시체계는 지적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착된 공간이며 대면적(face to face)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제공방식은 자기결정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는 Abery(1994)가 제안한 자기결정 생태학적 과정이다.



〈그림 2〉 생태학과정

생태학이론은 자기결정 논의를 개인적 차원에서 환경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자기결정 수준을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노력과 여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 최대의 지적장애인 옹호조직인 Arc²⁾도 선택이나 결정 기회, 기술 학습 등의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지적장애인들도 충분히 자기결정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생태학이론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환경요인은 물리적 환경과 지원 특성으로 분류된다.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는 거주유형, 시설규모, 공동공간(unit)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거주유형의 경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그룹홈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Robertson 외(2001)는 소규모이고 일반가정과 유사한 구조일수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Wehmeyer와 Bolding(1999)는 지역사회기반(자립, 경쟁고용), 지역사회기반 집단생활(그룹홈, 보호고용), 비지역사회기반 집단생활(거주시설)로 분류한 결과 거주형태에 따라 자기결정, 자율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시설규모의 경우, Tossebro(1995)가 직접서비스 제공자 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시설규모와 자기결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소규모일수록 지적장애인의 결정 기회가 많아지고(Stancliffe, 1997; Wehmeyer and Bolding, 2001), 대규모일수록 제한되고 있다(Stancliffe et al., 2000).

2) Arc(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는 1950년대 설립되어 미국 내 730개의 지부와 14만 회원으로 구성된,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을 위한 최대 옹호조직이다.

공동공간(unit)의 경우 Abery와 Stancliffe(2003)는 중단연구를 통해 공동공간거주인 수와 자기결정 수준의 관련성을 밝혀냈으며, Tøssebro(1995)은 6~10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1~5명일 때 거주인이 훨씬 긍정적이며 자기결정 수준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박공식(2004)은 지적장애인을 원가정, 그룹홈, 생활시설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자율성 수준은 그룹홈이 가장 높고, 생활시설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 다양한 거주유형을 체험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비교연구(이경준, 2005; 이순자, 2009)에서도 독립성을 강조하는 지원일수록 자기결정 수준이 높고 당사자들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더 작고, 보다 독립적이고, 덜 구속하는 거주환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삶의 방식이나 일상적인 여건이 최대한 보편적인 환경과 사회적 방식에 가깝게 되어야만 스스로 결정하기 쉬운 것'이라는 Nirje(1972)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Smith et al., 2005 재인용).

지원 특성에는 실천가의 태도와 기관의 운영철학이 포함된다. Hahn(1994)에 따르면, 실천가들은 자기결정 지원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적장애인을 무시하거나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며(이경준, 2005 재인용), 지적장애인이 순종할 것을 고집한다고(Wong and Wong, 2008) 지적하였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창의성과 유연성(Loon and Hove, 2001), 거주인의 표정, 몸짓, 행동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Guess and Siegel-Causey, 1985)을 강조하였다. 시설의 운영철학의 경우 Wong과 Wong(2008)은 지적장애인의 자율성을, Loon과 Hove(2001)은 권위적인 방법과 획일적인 업무방식을 경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천가의 지원방식이나 태도를 서베이를 통해 파악하기 어렵고, 기관이 내세우는 운영방침이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그 대신 주변 환경과의 소통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 시설위치(Robertson et al., 2001)를 변수로 포함시켰다.

3) 평등기회이론

Mithaug(1996)가 제안한 평등기회이론(equality opportunity theory)은 '사람은 자기결정 권리를 가진다', '사회에는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회도 갖지 못한다', '자기결정 기회는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다', '사회는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5가지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동등한 기회의 강조는 자기결정 권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적장애인에게 결정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는 모순 때문이다. Mithaug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이 사회에 있으므로, 사회는 지적장애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정기회는 지적장애인에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Guess et al., 2008), 자기결정 수준을 향상시키며(Wehmeyer and Bolding, 2001),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Karr, 2009). 그러나 오랫동안 지적장애인은 자기결정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으며(Wehmeyer, 1998) 결정

기회도 보장받기 어려웠다(Kishi et al., 1988; Faw et al., 1996). 철학적·심리적 기초에서, 평등기회 이론은 지적장애인에게 기회가 보장되면 자기결정 수준이 높아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츰 무기력해지고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과 유사하다. Jenkinson(1993)은 지적장애인 결정능력의 부족은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있음을 제기하였고, Seligman(1975)도 시설 장애인들은 무기력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아침식사 메뉴선택, 커튼 색깔 선택, 영화 보러가기, 잠잘 시간'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Wehmeyer와 Metzler(1995)가 성인 지적장애인 4,5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참여자의 66%는 '어디에서 살 것 인지를 결정할 수 없고', 88%는 '지원교사를 선택할 수 없고', 77%는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없고', 56%는 '직업을 결정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장애인들은 '무엇을 입을지, 언제 잠 자러 갈지, 언제 일어날지' 등 사소한 결정(minor decision)과 '언제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택할지' 등 중요한 결정(major decision) 모두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제공이 자기결정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임이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개인적 요인과 기회제공의 관계에서, Heller 외(1999)는 지적장애인의 적응행동 수준에 따라 결정 기회가 달라짐을 보고하였으며, Robertson 외(2001)는 중증에 비해 경증 지적장애인의 결정 기회가 증가하였고, 기회의 증가는 자기결정 수준과 비례한다고 밝혔다. Nota 외(2007)는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무능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보편화된 배경에는 중증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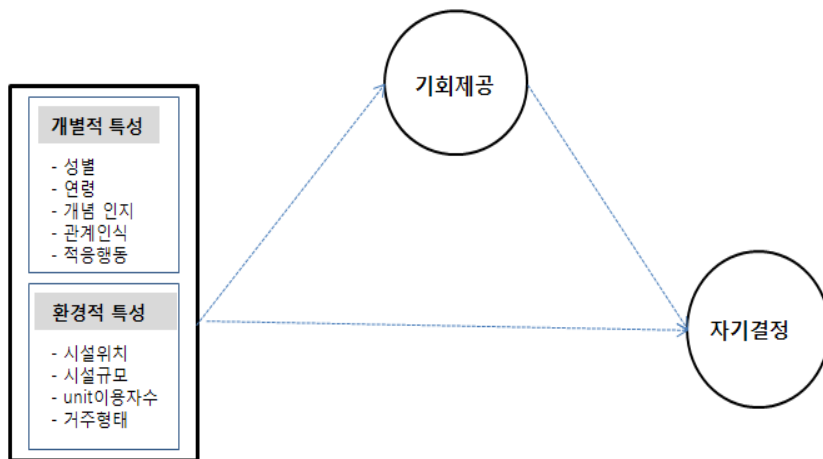
한편, 환경적 요인과 기회제공의 영향관계에 대해, Duvdevany 외(2002)는 다수의 공동생활과 집단 규칙 등 특성상 생활시설은 지적장애인을 과보호하며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결정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Abery와 Stancliffe(1996)은 지역사회 이주집단과 시설 거주집단을 비교한 중년연구에서, 지역사회로 이주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결정 기회를 훨씬 많이 보장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거주환경에 따라 기회가 제공되는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대규모시설에서는 선택과 결정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ncliffe et al., 2000; Wehmeyer and Bolding, 2001).

요약하면, 기회제공이란 선택과 결정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고, 자기결정이란 수행 정도를 의미하는 '결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회제공은 자기결정 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자 지적장애인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기결정 수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변수를 제외하면, 자기결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에서 언급되는 여러 요인들이 지적장애인의 결정 기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개별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기회제공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이론과 생태학이론에 기초하여 주요 변수들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 다루고 있는 요인들, 변인 간 시간적 우선순위, 연구자의 경험 등을 토대로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기회제공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생활시설 성인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변수관계를 토대로, 본 연구는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과정과 기회제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과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2) 조사대상자와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복잡하지 않는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짧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인 지적장애인이다. 1:1 면접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응행동을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목적적 표집방법을 선택하였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1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검토 후 최종 21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 연구참여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보다 세심하게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서베이 직전에 연구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여부와 응답내용의 비밀보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지적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자를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로 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였다. 서베이 과정에서도 참여의사를 반복할 수 있으며, 설문에 응대하기 힘든 경우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4)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자기결정은 '지적장애인이 여가, 외출, 친구관계, 식사, 운동, 용돈관리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자기결정은 Cho(2009)가 개발한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척도(K-MSD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칙도 중 우리나라와 제도적·문화적 차이가 있는 경제영역과 도우미영역을 제외하고 일상활동, 여가, 친구, 건강, 직업, 계획 등 6개 영역 총 3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3점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2) 매개변수

기회제공은 '지적장애인이 시설에서 의류, 용돈, 프로그램, 방, 기상시간, 휴일, 텔레비전 채널 등의 선택과 결정기회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를 의미한다. 기회제공은 Kishi 등(1988)이 개발한(Life Choice Survey :LCS) 척도를 활용하였다. 원칙도는 5점척도로 구성되었으나 사전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빈도 차이를 어려워한 것으로 나타나 3점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지적장애인의 기회가 많음을 의미한다. 기회제공의 Cronbach's $\alpha = .77$ 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에서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측정변수가 많은 경우 모형적합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분석에 앞서 항목묵기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기회제공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활동인 일상활동(A), 시설 내 개별 차원의 활동인 개별활동(B), 시설 내 집단 차원의 활동인 공동활동(C) 등 3개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3) 독립변수

① 개별적 특성

성별은 여성을 1로, 남성을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은 수리적 개념이 취약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적장애인의 응답결과를 실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기결정 개념인지 여부는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와 자기결정이 무슨 의미로 이해하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응답결과에 대해 자기결정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 1로, 자기결정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실무자와의 관계는 Q방법론을 활용한 선행연구(김용득 외, 2009)에서 도출된 세 가지 유형인 '위계적 관계, 상호의존 관계, 이용자중심 관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유형을 단일문항으로 묻고, 연속변수인 3점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사자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적장애인의 적응행동 수준은 미국정신지체인협회(AAMR)에 의해 개발된 '주거 및 지역사회 적응행동검사(Adaptive Behavior Scale-Residential and Community 2nd ed/ABS-RC:2)' 이용하였다. 적응행동 척도는 미국 43개주 4,000여명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10개 영역³⁾ 1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 말 또는 2011년 초에 적응행동평가를 실시한 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적응행동의 Cronbach's $\alpha = .74$ 로 나타났다.

② 환경적 특성

시설위치는 시설이 위치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며, 지적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위치가 도심에 가까운 경우 1,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시설규모는 시설 정원이 아닌 현원 즉 현재 이용자 수를 의미한다. 공동공간(unit)이용자 수는 침실, 거실, 욕실 등 사적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공유하는 거주인 수를 지칭한다. 시설규모의 크기가 반드시 공동공간(unit) 이용자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실무자의 의견과 연구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거주유형은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등의 제도상의 구분이 아닌 소수가 거주하며 지적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연습하고 체험하도록 마련된 공간과 다수가 생활하는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보통 2인~4인이 거주하며 가정과 유사하게 공간이 구성된 체험홈은 1,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9.0와 Amos 19.0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고 연구모

3) 10개 영역은 독립기능, 신체발달, 경제활동, 언어발달, 수와 시간, 가사활동, 직업관련활동, 자기관리, 책임, 사회화 등이다.

형의 적합성 및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정의된 개념의 측정오류에 대한 통제 가능하고, 여러 변수들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매개변수의 사용에 용이하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이론적 모형이 실제와 잘 부합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분석 이전에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규성, 이상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으며, 결측치를 고려한 다중대체방법(multi-regression)을 사용하였고, 개념 측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한 다음 변수의 인과구조를 검증하는 이단계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취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여성이 118명(53.9%)으로 남성 101명(46.1%)보다 많으며, 평균 연령은 36.8세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의 경우 경증에 해당되는 지적장애인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급 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자(85.8%)와 자기결정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70.3%)의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인구 학적 특 성	성별	남성	101	46.1	거주 관련 특 성	시설위치	도심 근교	172	78.5
		여성	118	53.9			도심 외곽	47	21.5
	연령	20대	56	25.6		시설규모	50인 이하	16	7.3
		30대	70	32.0			51인 ~ 80인	61	27.9
		40대	70	32.0			81인 ~ 100인	92	42.0
		50대 이상	23	10.5			101인 이상	50	22.8
		평균(SD)	36.8(9.98)				평균(SD)	86.1(33.60)	
		장애등급	장애1급	65			29.7	공동공간 (unit) 이용자 수	3인 이하
	근로참여	장애2급	95	43.4		4인	105		47.9
		장애3급	59	26.9		5인	58		26.5
	자기결정개 념인지	참여함	188	85.8		이용자 수	6인 이상	28	12.8
		참여안함	31	14.2			평균(SD)	4.1(1.38)	
자기결정개 념인지		개념인지	65	29.7	거주형태	시설내	141	64.4	
	인지못함	154	70.3	체험홈		78	35.6		
합계		219	100.0	합계		219	100.0		

조사대상자의 거주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 (78.5%) 도심 근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시설규모는 평균 86.14명이다. 공동공간(unit)이용자 수는 4.09명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는 체험홈에 비해 시설 내 거주하는 비율(64.4%)이 높게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특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살펴보았으며,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의 자료와 분포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점검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미만으로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상관관계, 결측치를 점검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진단 지표가 되는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가 모두 10이하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으며, 상관관계 계수값이 절대값 .80을 넘는 것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측치에 있어서 규모가 크지 않고 정규성을 위배하기 않기 때문에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자료특성과 분포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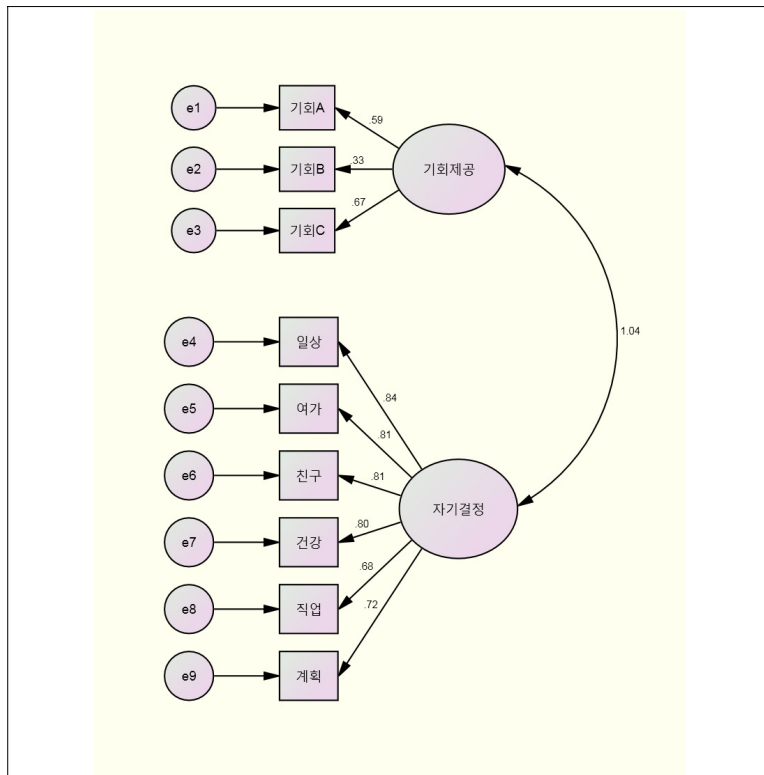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자기결정							
일상활동영역	2.10	.476	1.00	3.00	219	-.311(.164)	-.730(.327)
여가영역	1.97	.351	1.13	2.88	219	.273(.164)	-.358(.327)
친구영역	2.21	.410	1.00	3.00	219	-.343(.164)	-.284(.327)
건강영역	2.01	.452	1.00	3.00	219	.161(.164)	-.741(.327)
직업영역	1.52	.391	1.00	2.60	188*	.816(.177)	.173(.353)
계획영역	2.00	.401	1.00	3.00	219	.088(.164)	.012(.327)
적응행동 합	210.48	47.918	91	297	219	-.534(.166)	-.426(.330)
관계인식	1.72	.665	1	3	219	.391(.164)	-.768(.327)
기회제공							
일상활동(A)	2.76	.430	1.00	3.00	219	-1.855(.164)	2.513(.327)
개별활동(B)	2.73	.548	1.00	3.00	219	-2.489(.164)	3.258(.327)
공동활동(C)	1.81	.701	1.00	3.00	219	.319(.164)	-1.055(.327)

* 직업영역의 경우 근로참여한 188명의 응답이며, 근로참여 않는 31명은 제외됨.

3) 연구모형의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잠재변수인 기회제공과 자기결정 등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여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0.589(df=26)$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가 적절하더라도 과도하게 불일치를 추정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확인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그 결과 GFI=.916 IFI=.940, CFI=.940, RMSEA=.059로 전반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이며,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음오차 분산과 표준화 계수, 측정계수의 표준오차가 모수추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측정모형 결과(표준화 계수)

(2)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구조모형을 실시하였다.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표 3>과 같다. 관계인식($\beta=.435$)이 자기결정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자기결정 개념인지($\beta=.272$), 시설위치($\beta=.271$), 적응행동($\beta=.241$), 시설규모($\beta=-.14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적장애인이 실 천가와의 관계를 당사자중심으로 인식할수록, 자기결정 개념을 인지한 경우, 시설이 도심에 위치한 경우, 적응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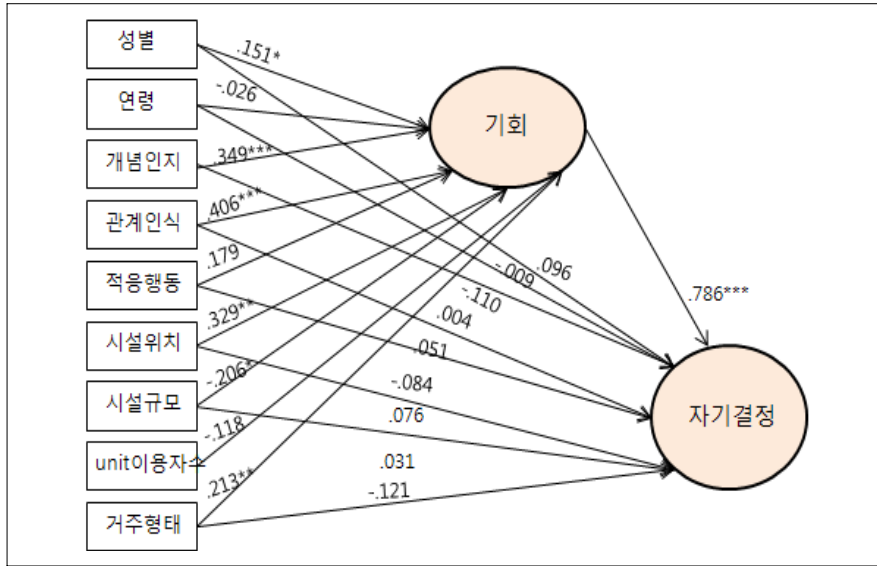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매개변수 제외)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S.E.	C.R.
성별 →	.049	.066	.041	1.186
연령 →	-.002	-.041	.002	-.667
자기결정개념인지 →	.221	.272	.047	4.661***
관계인식 →	.244	.435	.034	7.238***
적응행동 → 자기결정	.002	.241	.001	3.348***
시설위치 →	.224	.271	.067	3.325***
시설규모 →	-.002	-.140	.001	-2.142*
unit이용자 수 →	-.026	-.098	.017	-1.510
거주형태 →	.082	.105	.045	1.819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 간 경로를 설정하여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기회제공이 매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모든 경로를 가정한 full-path model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227.119(df=89)$, GFI=.915, IFI=.920, CFI=.917, RMSEA=.059로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개별적 특성은 지적장애인이 실천가와의 관계를 당사자 중심으로 인식할수록($\beta=.406$), 자기결정의 개념을 인지한 경우($\beta=.349$)와 여성($\beta=.151$)인 경우 결정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과 적응행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특성은 도심근교에 위치한 경우와($\beta=.329$), 체험홈인 경우($\beta=.213$), 시설이 소규모일수록($\beta=-.206$) 결정기회가 많으나, 공동공간(unit)이용자 수는 기회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회제공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기회가 많을수록($\beta=.786$) 자기결정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변수를 포함시킨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은 기회제공을 매개로 자기결정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구조모형 분석결과(표준화 계수)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로가 발견되어 이를 삭제하고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38.423(df=101)$ 였으며, GFI=.922, IFI=.913, CFI=.916, RMSEA=.057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초기모형과 비교하여 수정모형의 χ^2 통계량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동질성이 확보되었다.4) 적합도 지수도의 경우 수정모형에서 간명도를 고려한 IFI와 RMSEA 값이 다소 좋아졌으므로 수정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초기모형과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

	χ^2	df	$\Delta\chi^2(\Delta df)$	GFI	IFI	CFI	RMSEA(CI)
초기모형	227.119	89		.915	.920	.917	.059(.065~.093)
최종모형	238.423	101	11.304(12)	.922	.913	.916	.057(.064~.090)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중심으로 새로 추정된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표준화 경로계수의 효과 크기를 해석할 때 Cohen(1988)에 기초하면 절대값이 .30 이상은 '보통'으로, .50 이상은 '큰' 효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회제공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높게 ($\beta=.794$) 나타났으며, 결정 기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관계인식($\beta=.477$), 개념인지($\beta=.354$), 거주형태($\beta=.164$), 시설규모($\beta=-.137$), 시설위치($\beta=.111$), 여성의 경우($\beta=.072$) 순으로 나타났다.

4) 자유도 12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χ^2 값은 21.0이다.

〈표 5〉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초기모형	최종모형
성별	→	.151*	.072*
개념인지	→	.349***	.354***
관계인식	→	.406***	.477***
시설위치	→	.329**	.111*
시설규모	→	-.206*	-.137*
거주형태	→	.213**	.164*
기회제공	→	.786***	.794***

* p < .05, ** p < .01, *** p < .001

(3) 효과분해

매개변수를 통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경로별 효과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최종모형의 효과분해: 표준화 계수

	기회제공			자기결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별	.072	-	.072	-	.068	.068
개념인지	.354	-	.354	-	.336	.336
관계인식	.477	-	.477	-	.453	.453
시설위치	.111	-	.111	-	.105	.105
시설규모	-.137	-	-.137	-	-.130	-.130
거주형태	.164	-	.164	-	.156	.156
기회제공				.794	-	.794

(4)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기회제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효과분해에서 검증된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매개분석 검증방법이 분석공식에 의존하여 여러 제약조건들이 있는데 비해 부트스트래핑은 기본가정을 전제하지 않으며 사례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추출하여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얻어내고, 회귀계수의 분포에서 신뢰구간을 확인하여 구간이 0의 값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므로 상대적으로 검증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배병렬, 2007).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기회제공은 개념인지, 관계인식, 시설위치, 시설규모와 자기결정 수준과의 영향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은 자기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회제공을 통해

자기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 개념을 인지하고, 실천가와의 관계를 자기주도적으로 인식하고, 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고,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지적장애인의 결정 기회가 증가하며, 기회제공이 증가할수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장애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기회제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표 7〉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매개효과
			매개변수 제거	매개변수 존재	
성별	기회제공	자기결정	.041	.128	없음
개념인지	기회제공	자기결정	.330***	-.108	완전 매개효과
관계인식	기회제공	자기결정	.463***	.247	완전 매개효과
시설위치	기회제공	자기결정	.087***	.164	완전 매개효과
시설규모	기회제공	자기결정	-.109*	.089	완전 매개효과
거주형태	기회제공	자기결정	.132	-.115	없음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을 연구에 참여시켜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기회제공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 연구에서 기회제공의 매개효과를 다룬 적이 없으므로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중 자기결정 개념인지, 실천가와의 관계인식, 적응행동은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행동과 자기결정의 관련성을 보고한(Stancliffe et al., 2000; Soresi et al., 2004; Nota et al., 2007)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장애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적응행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과 연령은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자의 무관성을 제시한 선행연구(Wehmeyer and Schwartz, 1998; Wehmeyer and Garner, 2003; Soresi et al., 2004; Nota et al.,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Nota 외(2007)의 연구는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의 환경적 특성 중 시설위치와 시설규모가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규모 시설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Stancliffe et al., 2000; Wehmeyer and Bolding, 2001)를 지지하며, 영향력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시설위치

(Robertson et al., 2001)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공동공간(unit)과 거주형태는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거주형태의 구분은 특성이 판이한 제도권의 분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설 내 공간 구성을 달리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셋째, 기회제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기회제공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 시설이 도심 근교에 위치한 경우, 지적장애인이 실천가와와의 관계를 당사자중심으로 인식할수록,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이 선택과 결정기회가 많아지며 그 결과 자기결정 수준도 높아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회제공의 매개효과관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기회를 통해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나타낸 것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기회가 자기결정 수준을 향상시키는 주요 예측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지적장애인이 일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생활시설의 서비스 혁신으로 중시되는 (Loon and Hove, 2001) 자기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결정 향상을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에게 서비스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식시켜야 한다. 자기결정 개념과 의미를 당사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자기결정 논의의 출발(이숙향, 2009)이며 실천가의 의무(Wehmeyer, 1998)이다. 지적장애인의 권익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기결정이 실현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자기결정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며, 삶의 질을 가늠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의 주요 쟁점인 참여와 통합의 강조에서 진정한 의미의 참여란 당사자의 자기결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결정 개념인지의 영향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는 자기결정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당사자주의의 핵심은 자기결정으로, 지적장애인은 서비스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최선의 지원은 지적장애인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회가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것이므로 실천가의 지원은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에서 결정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기회제공의 완전매개효과는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기회가 확보되어야만 자기결정 뿐만 아니라 다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Duvdevany et. al., 2002; Wong and Wong, 2008)을 입증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결정기회를 통해 권리를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가의 노력과 변화가 요구된다. 실천가의 역할과 기능,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중요성 이해 및 능력 존중 등의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정기회를 보장하려는 실천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거나 일하는 환경의 중요한 타자들이 기회제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Stancliffe, 2001), 동등한

기회의 보장은 사회적 책임이라는(Mithaug, 1998)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주시설의 환경과 관련한 세부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시설위치는 지역사회와 지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시되며 지적장애인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시설 소규모화는 국제적 추세이다(Wong and Wong, 2008).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 2012. 3. 31)에 따르면,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과 신규시설의 정원(30인 이하) 등이 명시됨으로써 거주환경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개선을 촉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설규모와 자기결정 영향 관계를 검증한 본 연구결과는 여전히 국내 생활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시설이 단계적으로 소규모로 전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일상공간인 생활시설을 배경으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결정 개념을 체계화한 이론들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예측모형을 구성하고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실천현장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비스제공자의 태도나 지원방식과 같은 변수들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다면적 변수들을 포함시키고, 자기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천가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자기결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층면담 등 질적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교연, 2007,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현황과 과제-”, 『한국장애인복지학』, 7: 167-193.
- 김용득·박숙경, 2008,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 79-103.
- 김용득·이복실·강희설, 2009, “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40(4) : 231-257.
- 박공식, 2004, “주거형태가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청람.
- 신종호·김동일·신현기, 2009, 『정신지체』, 시그마프레스.
- 이경준, 2005,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보장원리”, 『재활복지』, 9(2) : 114-141.
- 이숙향, 2009,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성인기전환과 관련된 자기결정 개념의 실제적 적용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3(4): 47-74.
- 이순자, 2009, “지적장애 성인의 주거형태에 따른 가족기능과 자기결정능력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우훈, 2006, “정신지체인의 성과중심 전환교육을 위한 자기결정기술 촉진 방략”,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성택, 2012,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128: 7-59.
- Abery, B., 1994, “A conceptual framework for enhancing self-determination”, 354, in *Challengers for a Service System in Transition : Ensuring Quality Community Experience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ited by Hayden, M., and Abery, B., Baltimore, MD: Brookes.
- Abery, B., and Stancliffe, R., 1996, “The ecology of self-determination”, 111-146, in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Life Span: Independence and Cho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dited by Sands, D. J., and Wehmeyer, M. L., Baltimore: Paul H. Brookes.
- Abery, B., and Stancliffe, R., 2003, “An ecological theory of self-determination: theoretical foundation”, 25-42, in *Theory in Self-Determination: Foundations for Educational Practice*, edited by Wehmeyer, M. L., Abery, B. H., Mithaug, D. E., Garner, N. W., Stancliffe, R. J., and Charles C., Thoma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ho, J. H., 2009, “A valid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innesota Self-Determination Scales(K-MSDS) for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Dissertation in Minnesota University.
- Duvdevany, I., Ben-Zur, H., and Ambar, A., 2002, “Self-determination and mental retardation: Is there an Association with living arrangement and life style satisfaction?”, *Mental Retardation*, 40(5) : 379-389.
- Emerson, E., Robertson, J., and Gregory, N., 2000, “Quality and costs of community based residential supports,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ial campuses in the United Kingdom”,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5: 81-102.
- Faw, G. D., Davis, P. K., and Peck, C., 1996, “Increasing self-determination: Teaching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to evaluate residential option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29: 173-188.
- Guess, D., and Siegel-Causey, E., 1985, “Behavioral control and education of severely handicapped students: Who’s doing what to whom? And Why?”, 230-244, in *Severe Mental Retardation : From Theory to Practice*, edited by Bricker, D. and Filler, J. Reston,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Guess, D., Benson, H. A., and Causey, E. S., 2008, “Concepts and issues related to choice making and autonomy among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33(1-2): 75-81.
- Hahn, M., 1994, “Selbstbestimmung im leben, auch fuer Menschen mit giestiger Behinderung”, *Geistige Behinderung*, 33(2): 81-94.
- Heller, T., Miller A. B., and Factor, A., 1999, “Autonomy in residential facilities and communities functioning of adult with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37: 449-457.
- Ippoliti, C., Peppey, B., and Depoy, E., 1994, “Prompting self determin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Disability and Society*, 9(4): 453-460.
- Jenkinson, J. C., 1993, “Who shall decide? the relevance of theory and research to decision-making by people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Disability and Society*, 8(4): 361-375.

- Karr, V. L., 2009, "International perspect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human rights,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Dissertation in Columbia University.
- Kishi, G., Teelucksingh, B., Zollers, N., Park-Lee, S., and Meyer, L., 1988, "Daily Decision-Making in Community Residences: A Social Comparison of Adults With and Without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2(5): 430-435.
- Loon, J. V., and Hove, G. V., 2001, "Eman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y and down-sizing institutional care", *Disability and Society*, 16(2) : 233-254.
- Mary, B. S., James, R. P., and Shannon, H. K., 2005, *Mental Retardation: An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Disability (7th Edition)*, Pearson.
- Mithaug, D. E., 1996, *Equal Opportunity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 Mithaug, D. E., 1998, "Your right?, my oblig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 41-43.
- Nirje, B., 1972.,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176-200, in *Normalization: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edited by Wolfensberger W., Toronto :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 Nota, L. L., Ferrari, S., Soresi, S., and Wehmeyer, M. L., 2007, "Self-determination, social abilities and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1(11): 850-865.
- Robertson, J., Emerson, E., Hatton, C., Gregory, N., Kessissoglou, S., Hallam, A., and Walsh, P. N., 2001, "Environmental opportunities and supports for exercising self-determination in community-based residential setting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2: 487-502.
- Schalock, R. L., and Keith, K. D., 1993,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Worthington, OH: IDS.
- Schalock, R. L., Luckasson, R. A., and Shogren, K. A., 2005, "The renaming of 'mental retardation': Understanding the change to the term 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5(2): 116-124.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Freeman.
- Smith, R. B., Morgan, M., and Davidson, M., 2005, "Does the daily choice making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meet the normalization principle",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Research*, 30(4): 226-235.
- Soresi, S., Nota, L., and Ferrari, L., 2004, "Counseling for adolescents and children at risk in Ital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7: 249-265.
- Stancliffe, R. J., 1997, "Community living-unit size, staff presence and resident's choice-making", *Mental Retardation*, 35: 1-9.
- Stancliffe, R. J., 2001, "Living with support in the community : predictors of choice and self-determinatio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7(2): 91-98.
- Stancliffe, R. J., Abery, B. H., and Smith, J., 2000, "Personal control and the ecology of community living settings : Beyond living-unit size and type",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5(6): 431-454.
- Tossebro, J., 1995, "Impact of size revised: relation of number of resident to self-determination and

- deprivation",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0: 59-67.
- Wehmeyer, M. L., 1998, "Self-determination and individual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 Examining meaning and misinterpretation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23(1): 5-16.
- Wehmeyer, M. L., and Bolding, N., 1999, "Self-determination across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s: A matched-samples study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37: 353-363.
- Wehmeyer M. L., and Bolding N., 2001, "Enhanced self-determination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s an outcomes of moving to community-based work or living environment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5(5): 371-383.
- Wehmeyer, M. L., and Metzler, C. A., 1995, "How self-determined are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the national consumer survey", *Mental Retardation*, 33(2): 111-119.
- Wehmeyer, M. L., Kelchner, K., and Richards, S., 1996,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self determined behavior of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0(6): 632-642.
- Wehmeyer, M. L., and Garner, N. W., 2003, "The impa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o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ous functioning",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6: 255-265.
- Wehmeyer, M. L., Kelchner, K., and Richards, S., 1996,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self determined behavior of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0(6): 632-642.
- Wehmeyer, M. L., and Schwartz, M.,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3(1): 3-12.
- Wong, P. K. S., and Wong, D. F. K., 2008, "Enchancing staff attitudes, knowledge and skills in supporting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residential settings in the Hong Ko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52(3): 230-243. <http://www.thearc.org>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 and Environmental Character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n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

Lee, Boksil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 among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n self-determination and to address issue of self determination in practical terms.

This study was analyzed by the Structural Equations Models with 219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residential home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Yeongnam area, the Honam area.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 factors such as adaptive behavior and provider-user relationship recogni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institution size and institution location were directly affected to the self-determination of them. The opportunity was a full mediating effect in this process.

In conclusion, this study stated how importance of the consumerism. Also it was suggested that some practical strategies to improve their self-determination in changing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upport methods of the service in way to emphasis their opportunities.

Key words: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elf-determination, individual character, environmental character, opportunity

[논문 접수일 : 13. 01. 09, 심사일 : 13. 01. 21, 게재 확정일 : 13. 03. 24]